

離任辭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분원 신소재공학과 고분자전공 趙 義 煥



壬申年을 맞이하여 會員 여러분께서 하시는 事業과 研究에 많은 成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祝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高分子學會를 위해서 會員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協助와 특히 產業界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後援에 대해서 學會의 일을 맡았던 任員들과 幹事들을 代表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지난 1991年은 國內外로 多事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韓國의 產業界는 큰 貿易赤字를 냈고 不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새로운 技術開發의 소리가 드높아지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高分子學會는 如前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풍요했던 일은 學會任員들의 任期를 二年에서 一年으로 단축하는 定款의 改定이었습니다. 그 동안 學會의 규모도 커지고 또 高分子分野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들의 學會活動에 대한 참여가 요구되고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에 學會의 任員과 幹事들의 單年制任期의 導入이 필요하게 되어 지난 해에 科技處의 承認을 얻어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能力있는 젊은 高分子人들이 學會活動에 참여하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 지난 三月에는 韓國IBM이 後援하는 國際심포지움(workshop)을 “첨단기술에 필요한 高分子材料”라는 論題를 놓고 美國에서 活動하는 韓國高分子人들이 여러사람 참석한 가운데 Sheraton Hotel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어떤 產業體가 特定한 分野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개최코져 할 때 學會가 組織과 進行을 맡아서 수행하며 會員들에게 그 分野를 정리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심포지움은 成功의이었고 會員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런 경우 後援한 企業體의 事業分野에 대해 효과적인 PR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學會의 傘下에 各種 分科의 結成은 以前부터 권장하고 후원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分科는 몇 십명 정도의 特定 分野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group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國內에서 그 分野의 發展을 기도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分子電子(molecular electronics)系統을 연구하는 高分子人들이 모여 分科를 결성했는데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學會의 活動中에서 주요한 것은 產學研官에서 일하고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對話와 協同의 廣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點에서 分科의 형성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學會의 定期刊行物의 하나로서 새로운 英文 學術誌의 발간을 적극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시작하는 것은 좀 無理라는 結論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되리라 생각되며 이런 事業은 뻔어나는 韓國高分子學界의 국제적 위상을 더 堅固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現在 惠泉빌딩의 學會事務室 옆의 空間을 買入함으로써 事務室의 擴張이 可能하게 되었다는 것을 會員님들께 보고드립니다. 1996年度에 개최될 IUPAC 國際심포지움은 世界的인 큰 行事인바 이에 대비해서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學會가 노력해서 모아온 基金의 적절한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學會의 事業이 진행된 지난 一年 동안 會長職을 맡았던 저 自身은 별로 활동을 못했고 모든 일은 專務理事였던 金聖喆博士와 여러 幹事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紙面을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感謝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히 會長職에 취임하신 洪性一教授님은 그 동안 學會를 위해서 많은 勞力을 하셨고 學德이 높으신 분이셔서 學會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 新任 任員들과 幹事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지난 1991年度에 學會를 위해서 성원해 주신 여러 會員님들께 感謝드리며 여러분의 家庭과 하시는 事業에 행운이 깃들기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壬申年 初에 趙 義 煥 드림